

# 〈최호양문록〉의 구조적 특징과 가정소설적 위상

김재웅

경북대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고전소설 전공

kimjw@kmu.ac.kr

I. 머리말

II. 〈최호양문록〉의 내용과 이본관계

III. 〈최호양문록〉의 구조적 특징

IV. 〈최호양문록〉의 가정소설적 위상

V. 맺음말

이 글은 어문연구학회 전국학술발표대회(2009년 9월 26일, 충남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필자의 논문을 꼼꼼하게 읽어주고 토론해 준 조도현 선생님과 사재동, 정준식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I. 머리말

조선 후기 국문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12종의 이본이 존재하고 있지만<sup>1)</sup> 작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작품의 표제는 최씨 집안과 호씨 집안의 혼사장에갈등을 내포한 가문소설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최호양문록〉은 두 집안의 혼사장에갈등뿐만 아니라 처처 간의 쟁송갈등, 충신과 간신의 선악갈등 등과 같은 다양한 사건을 포함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러한 필사본 〈최호양문록〉을 학계에 소개하여 고소설사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최호양문록〉은 필사본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연구자의 폭넓은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필사본은 판각본이나 활자본에 비해 작품의 내용을 판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품 연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을 꼼꼼히 판독해 본 결과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김이양문록〉과 함께 양문록의 표제를 보여주고 있지만, 작품의 실상은 가정소설의 구조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sup>2)</sup> 따라서 〈최호양문록〉에 대한 관심은 조선 후기 가정소설의 다양성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활자본 〈월영낭자전〉과 이본관계에 놓여 있다. 활자본 〈월영낭자전〉에 집중된 기존연구는 필사본 〈최호양문록〉에 대한 연관성을 전혀 밝히지 못했다.<sup>3)</sup> 이러한 측면에서 고소설의 이본관계 검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고소설의 방대한 이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희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호양문록〉과 〈월영낭자전〉의 이본관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sup>4)</sup> 따라서 필사본 〈최호양문록〉과 활자본 〈월영낭자전〉은 동일한 작품의 이본이라

1)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집문당, 1999), 742쪽; 조희웅, 『고전소설 연구보정』(박이정, 2006), 1038쪽.

2) 김재웅, 「〈김이양문록〉의 창작방법과 가정소설적 의미」, 『영남학』 12호(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7.12), 123-153쪽.

3) 안남기, 「〈월영낭자전〉 연구」(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2), 1-126쪽; 송영호, 「월영낭자전 연구」(강원대 석사논문, 1997), 1-56쪽; 이병일, 「월영낭자전 연구」(인천대 석사논문, 1993), 1-70쪽; 민영대, 「월영낭자전에 등장하는 인물의 유형과 역할」, 『한남어문학』 29집(한남대 국문학과, 2005), 41-69쪽; 민영대, 「〈월영낭자전〉 연구(1)」, 『한남어문학』 26집(한남대 국문학과, 2002), 73-100쪽.

4) 조희웅, 앞의 책, 463-464쪽, 743쪽.

는 점을 새롭게 추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필자는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서 필사본 〈최호양문록〉 1종을 발굴했다. 이 작품은 기존의 이본목록에도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자료이다. 계명대본 〈최호양문록〉은 “세지갑술월지맹춘”이란 필사기 덕분에 필사시기를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다.<sup>5)</sup> 필사기에 등장하는 갑술년은 1874년일 것으로 보인다.<sup>6)</sup> 이 때문에 작품 판독 및 이본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의 이본에 대한 다각적인 비교연구를 통해 조선 후기 가정소설의 토대를 굳건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필사본 〈최호양문록〉의 구조적 특징과 가정소설적 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사본 〈최호양문록〉의 이본 검토와 더불어 활자본 〈월영낭자전〉도 참고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 필사본 〈최호양문록〉의 구조적 특징과 가정소설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필사본 〈최호양문록〉에서 활자본 〈월영낭자전〉으로 개작되는 과정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 II. 〈최호양문록〉의 내용과 이본관계

### 1. 〈최호양문록〉의 줄거리

(가) 대송시절에 이부상서 최현은 문장학행이 뛰어나 명성이 나라에 진동한다. 최상서는 용모와 재덕이 빼어난 부인이 아들을 낳아 희성이라 이름 짓는다. 최희성은 어려서부터 출중한 능력을 보인다. 호시랑 부인이 태몽을 꾸고 딸을 낳았는데 재덕이 빼어나 이름을 월영이라 짓는다. 호공이 최부에 가서 희성과 월영의 혼사를 약속하면서 옥장도와 월기탄을 징표로 교환하였다.

5) 계명대본, 〈최호양문록〉, 1-116쪽. 계명대본의 표지에는 ‘崔胡兩門錄 單’이라 적혀 있고 내지에는 ‘최호양문록 권지단’으로 적혀 있다.

6) 계명대본, 〈최호양문록〉에 기록된 갑술년은 1874년 또는 1934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필사본은 1916년에 출간된 활자본보다 선행본이다. 작품의 필사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에는 이본관계에서 다루기로 한다.

(나) 조정의 간신 여화가 호시랑을 참소하자, 호시랑은 월영과 희성의 결혼을 당부한 뒤 간신에게 죽임을 당한다. 여씨부인은 딸에게 편지를 남기고 남편을 따라 자결한다. 호소저는 부모의 시신을 거두어 초상을 치르고 최상서는 호소저를 위로한다. 부모의 3년 상을 치른 월영은 희성과 결혼해 양가의 후사를 이으라는 부모의 유서를 보았다.

(다) 자사 원선이 아내 형씨를 내치고 호소저의 미모에 반해 채취하고자 하였으나, 호소저는 최상서 아들과 결혼을 약속했기에 거절한다. 자사는 최랑의 서간과 교자를 위조하거나 자객을 파견하여 호소저를 채취하고자 했으나 실패한다. 이러한 자사의 음모를 지혜로 막아낸 호소저는 후환을 막기 위해 초상을 치르게 한 뒤 번복하여 길을 떠난다. 호소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자사는 즉시 아내 형씨를 데려온다.

(라) 남장하여 피신한 호소저는 소주현 경어사 집에 유숙하다가 부인의 수양딸로 지낸다. 한편, 장원급제한 최희성은 호씨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민승상의 딸과 결혼한다. 최희성과 호소저는 천상 연분을 확인하는 꿈을 꾸었다. 민씨부인은 채취의 꿈이라고 했으나, 최희성은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마) 천자가 최희성에게 예부시랑 간의태부를 겸하게 한다. 최희성은 소주 숙부인 문병을 갔다가 경어사 집에서 호소저를 만난다. 희성은 부모에게 그간의 사실을 말하여 호소저를 육례로 데려온다. 최공 부부는 호소저가 돌아온 것을 기뻐했으나, 민씨는 마음이 아파도 내색하지 않는다. 최생은 두 부인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점차 호씨에게 마음이 기울어진다.

(바) 정국공의 장녀는 황후가 되고 차녀는 최공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시랑과 결혼하였다. 정씨는 황후의 위엄을 자랑하고 방자하여 시부모가 불안하게 생각한다. 정씨는 남편의 총애를 호씨, 민씨에게 빼앗김을 분하게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은 뒤부터 교만해진다. 정씨는 호씨의 아래에 있음을 불평한다.

(사) 천자는 최희성에게 별히도의 사신으로 보내어 강적을 토벌하고 돌아오게 한다. 희성은 정씨에게 간악함을 없애라고 당부한다. 정씨가 호씨의 친필을 위조해 절강 쌍한림을 연모하는 서간을 조작한다. 계교를 부리던 정씨는 아들이 병사하면서 더욱 흉악해진다. 절강 쌍한림이 보낸 자객이 희성을 죽이려 했으나 실패한다. 정씨의 계교로 최상서는

호씨를 궁문하며 호씨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한다.

(아) 최시랑이 별히도에서 민심을 진정한 뒤 호씨의 꿈을 꾸고 급히 돌아온다. 호씨는 천자에게 그간의 사정을 말하였으나 정국공이 죽이라고 강요한다. 갑자기 태풍이 불면서 천상 선인은 호씨가 천상 옥진성임을 말한다. 비로소 천자는 계략에 속았음을 깨닫고 정씨를 잡아들이라 했지만 정씨는 자결한다. 천자는 호씨를 무고한 시비를 죽이고 정국공을 유배 보낸다.

(자) 천자는 호씨의 절행을 칭찬하고 상금을 주어 보낸다. 호씨가 최부에 도착하니 상서 부처가 부끄러움을 머금고 기뻐한다. 최시랑이 천자를 알현했을 때 예부상서를 제수하고 민씨는 소국부인, 호씨는 위국 부인으로 각각 봉하였다. 집에 돌아온 최희성은 호씨의 병구완을 한다.

(차) 정국공이 딸의 시신을 최가에 안장하려 했으나 각노 최현이 거부하여 정가의 선산에 안장하였다. 호씨는 자식이 어미 죄로 죽음을 한탄한다. 호씨와 희성은 민씨의 덕을 칭찬한다. 세월이 흘러 민씨와 호씨는 잉태하여 자녀를 낳았다.

(카) 천자가 죽고 태자가 즉위해 흉노 정벌을 위해 최희성을 대원수로 출정시킨다. 최상서가 공을 세워 천자는 최현을 우승상 양후로, 최희성을 조국공 양후로, 민씨는 정국비, 호씨는 태원비로 각각 봉하고 그 절행을 표상해 만후 정절부인을 겸하게 한다. 천자는 동남문 밖에 승천궁을 짓고 충신정절 최적문이라 쓰고 문 앞에 호씨 정절비를 세워준다.

(타) 호씨는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화, 연쾌 등의 간계를 밝혀 처참한다. 그리고 친정 모친인 여씨부인의 절부비를 세워준다. 최희성과 두 부인이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자녀들의 벼슬이 높아진다. 이때 호부인이 병이 들어 자녀와 손녀들에게 올바른 행실을 당부한 뒤 세상을 떠난다. 최희성과 민씨, 호씨의 자녀들이 각각 벼슬을 하고 배필을 얻어 결혼한다.

이상에서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천상 연분을 가진 최희성과 호월영의 혼사장애갈등과 호씨와 정씨의 처처 간 쟁충갈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호양문록〉은 최씨와 호씨 집안의 혼사장애갈등을 다루는 (가)-(마)의 전반부와 처처 간의 쟁충형 갈등을 다루는 (바)-(타)의 후반부로 구분할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양가 부친에 의해 신물까지 주고받은 혼사가

뜻하지 않은 간신의 모함으로 호씨의 부친이 옥사하면서 갈등이 발생한다. 후반부에서는 최희성의 둘째부인 호씨와 셋째부인 정씨 사이에 처처 간의 쟁충형 갈등이 발생한다.

전반부에서는 집안이 몰락한 호소저가 부모의 3년 상을 치루고 자사 원선의 재취육망을 물리치면서 부모의 뜻대로 최희성과 결혼하게 된다. 후반부에서는 정씨부인이 호씨부인의 편지를 위조해 정절을 훼손했다는 모함으로 집안의 주도권을 장악한다. 이 때문에 호씨부인은 감옥에서 혹독한 문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처처 간의 쟁충형 갈등은 조선 후기 가정소설의 핵심 사건이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의 줄거리는 조선 후기 가정소설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최호양문록>의 표제는 최씨 집안과 호씨 집안의 혼사장애갈등을 내포한 가문소설의 성격을 보여준다. 주지하듯이 가문소설은 가문 간의 혼사장애갈등 및 누대에 걸친 가문의 번창을 염원하는 가문의식을 내포하고 있다.<sup>7)</sup> 그런데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혼사장애갈등과 처처 간의 애정갈등이 전·후반부의 서사 전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그 중에서도 늑혼에 의한 쟁충형 갈등이 작품의 전·후반부를 유기적 구조로 통합하고 있다. 따라서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조선 후기 쟁충형 가정소설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 2. <최호양문록>의 이본관계와 서지사향

현재까지 알려진 필사본 <최호양문록>의 이본은 모두 12종이다.<sup>8)</sup> 여기에 <최호양문록>과 이본관계에 있는 필사본과 활자본 <월영낭자전>을 포함하면 모두 22종으로 늘어난다.<sup>9)</sup> 이렇게 조선 후기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22종이 유통되면서 일정한 독자층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최호양문록> 이본의 서지사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 장효현, 「장편 가문소설의 성립과 존재양태」,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아세아문화사, 1994), 495-522쪽.

8) <최호양문록>의 이본으로 알려진 박순호본 2종은 실물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정명기본, 양승민본, 영남대본은 실물을 확인했는데 완질이 아니라 모두 낙질로 존재하고 있다.

9) 활자본 <월영낭자전>의 이본은 모두 4종이 존재하지만 내용은 모두 같다.

| 작품명   | 소장처  | 필사기록 및 항유층                   | 비고                  | 필/활 |
|-------|------|------------------------------|---------------------|-----|
| 최효양문록 | 계명대  | 세지갑술(1874)월지명춘               | 116쪽<br>(17줄, 15자)  | 필사본 |
| 최효양문록 | 박순호  | 을묘(1855, 1915)신정초일           | 120쪽                | 필사본 |
| 최효양문록 | 김광순  | 경상도 방언의 빈번한 첨가               | 112쪽<br>(12줄, 19자)  | 필사본 |
| 최효양문록 | 성대   | 을해(1875, 1935)초월초삼일          | 140쪽<br>(12줄, 16자)  | 필사본 |
| 최효양문록 | 한중연  | 18쪽 이후 〈유씨삼대록〉 첨가            | 18쪽                 | 필사본 |
| 최효양문록 | 연세대  | 무신(1908)납월<br>경북 문경군 산방면 녹문리 | 46쪽<br>(12줄, 18자)   | 필사본 |
| 최효양문록 | 홍윤표  | 2권2책, 을묘(1915)십월초이일          | 1권(104쪽)<br>2권(93쪽) | 필사본 |
| 월령전   | 한중연  | 경신(1920)십이월이일                | 68쪽                 | 필사본 |
| 호씨행녹전 | 한중연  | 임자(1912)정월, 책주 고령 박씨부인       | 142쪽                | 필사본 |
| 호씨전   | 단국대  | нім술(1922)시월염육일, 책주인 박생원택    | 76쪽                 | 필사본 |
| 호씨전   | 단국대  | 계해(1923)십월십구일                | 158쪽                | 필사본 |
| 호씨전   | 단국대  | 소화십오년(1940)                  | 104쪽                | 필사본 |
| 호씨호공록 | 국민대  | 을축(1925)초춘, 조소제 필서           | 98쪽                 | 필사본 |
| 월영낭자전 | 한성서관 | 1916년                        | 81쪽                 | 활자본 |
| 월영낭자전 | 회동서관 | 1925년                        | 61쪽                 | 활자본 |

〈최효양문록〉은 다양한 필사본으로 오랫동안 유통되었을 뿐만 아니라 활자본 〈월영낭자전〉으로 거듭 출판되었다. 이 작품은 〈최효양문록〉(12종), 〈월령전〉(1종), 〈호씨행녹전〉(1종), 〈호씨전〉(3종), 〈호씨호공록〉(1종), 〈월영낭자전〉(4종)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표제를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최효양문록〉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필사본 〈월령전〉, 〈호씨전〉과 활자본 〈월영낭자전〉은 모두 작품의 여주인공 호씨의 성이나 이름을 따서 표제로 삼았다. 〈호씨호공전〉은 여주인공 호씨와 아버지 호공을 작품의 표제로 삼았다면 〈호씨행녹전〉은 호씨의 행실을 작품의 표제로 삼았다고 하겠다.

필사본 〈최효양문록〉의 필사기록은 60년의 편차를 보이지만 대체로 1874년에서 1940년까지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sup>10)</sup> 이때는 필사본을 모본

10) 계명대본 〈최효양문록〉의 ‘갑술년’은 1874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일관된 필체와 다채로운 서사 내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1916년에 간행된 활자본보다 선행본이다. 고소철의 축약본이 확장본보다 선행본임을 감안할 때, 계명대본은 1915년에 필사된 홍윤표본보다 작품의 내용이 축약된 점으로 보아 필사시기는 1874년으로 보인다.

으로 활용해 방각본이나 활자본이 본격적으로 출판되던 상업성의 시대이다. 그럼에도 <최호양문록>은 방각본으로 개작되지 않고 필사본으로 다양하게 유통되다가 1916년 활자본으로 출판되었다. 왜냐하면 <최호양문록>은 방각본의 출판시기와 동일한 기간에 창작되었거나 필사되었기 때문이다. 필사본으로 유통된 <최호양문록>에는 향유층의 다양한 의식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고소설의 필사시기를 검토하면 작품의 필사 및 향유계층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필사되었다.<sup>11)</sup> 농한기에 필사된 <최호양문록>은 단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향유층의 신분계층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간신의 모함으로 호씨 집안의 몰락과 여성의 정절 및 혼사장애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 향촌 선비집안의 여성들이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호씨행록전>, <호씨호공록> 등의 이본에는 ‘고령 박씨부인’, ‘조소저’ 등과 같은 여성 향유층의 필사기록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필사본 <최호양문록>의 향유층은 조선 후기 향촌의 선비집안 및 학자집안의 여성이 필사하고 독서한 것으로 추정된다.<sup>12)</sup>

그렇다면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어느 지역에서 유통되었을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필사기에 적혀 있는 유통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김광순본 <최호양문록>은 19세기 말 경상도 방언의 특징이 뚜렷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영남 지역에서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sup>13)</sup> 연세대본 <최호양문록>은 말미에 “경북 문경군 산방면 녹문리”에서 유통되었음을 보여주는 필사기록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면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유교 윤리가 강조된 영남 지역에서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

그리고 성대본도 계명대본과 유사하여 1875년에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11) 김재웅, 「경북 지역에 유통된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실증적 연구」, 『고소설연구』 24집(한국고소설학회, 2007.12), 219-250쪽; 김재웅, 「호남 지역에 유통된 필사본 고소설의 종류와 향유층에 대한 연구」, 『고소설연구』 28집(한국고소설학회, 2009.12), 269-299쪽. 필사본 고소설을 향유한 신분계층은 대체로 농업과 깊은 관련성을 보여준다.

12) 김재웅, 앞의 논문, 219-250쪽; 김재웅, 「영남 지역 필사본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향유층의 욕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집(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6), 5-35쪽. 조선 후기 필사본 가정소설은 남성보다 여성 향유층이 선호했던 작품이다.

13) 김광순, 『김광순 소장 필사본 고소설전집』 54권(박이정, 2002), 349-459쪽. 이 작품은 19세기 말엽 경상도 방언의 특징인 “옥수얼, 양친얼, 아비랄, 소저얼, 깃뽀얼, 칼얼” 등과 같이 “으/어”의 중화현상이 일관되게 등장하고 있다.



단국대본 〈호씨전〉은 호씨의 아들을 금광사 중이 구해주거나 벽해도 사신으로 간 사위의 목숨을 장인이 구해주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한중연본 〈월령전〉은 월영의 출생대목과 남녀 주인공의 천상 복귀 대목이 생략되었다. 한중연본 〈호씨행록전〉은 천상의 옥황상제가 회성과 월영의 끊어진 인연을 이어주는 대목이 상세하게 나타난다. 국민대본 〈호씨호공록〉은 정씨가 남편의 애정을 차지하기 위해 시부모에게 ‘개심단’을 먹여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리고 금광사 승려 설난이 호씨의 아이를 발견해 사원으로 데려갔는데, 경어사 부인이 그 아이를 자식으로 삼아 기르는 내용이 새롭게 첨가되어 있다. 따라서 필사본 〈최호양문록〉의 이본은 호씨 아들의 생사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를 보인다.

필사본 〈최호양문록〉과 활자본 〈월영낭자전〉의 이본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에 등장하는 호소저의 이름을 작품의 제목으로 만들어 활자본 〈월영낭자전〉으로 개작했다. 당시의 출판업자들은 필사본의 작품성과 독자층의 향유의식을 생각하여 활자본을 상업적으로 간행한 것이다. 1916년 활자본으로 개작하면서 ‘양문록’의 표제를 여성 주인공인 호월영의 일대기로 변모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필사본 〈최호양문록〉도 활자본 〈월영낭자전〉으로 개작된 것으로 보인다.

활자본 〈월영낭자전〉은 한성서관, 유일서관, 회동서관 등에서 간행되었지만 내용은 동일하다.<sup>14)</sup> 〈최호양문록〉과 〈월영낭자전〉의 이본을 비교해 보면 필사본에 비해 활자본이 훨씬 사건 구성이 치밀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독자층을 의식해 필사본을 각색하여 활자본으로 간행했기 때문에 일관된 구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활자본에 비해 필사본은 사건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호소저의 미모를 탐하는 자사 원선의 권력형 비리는 필사본 〈최호양문록〉에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활자본 〈월영낭자전〉에는 축약되어 등장한다. 필사본에서는 여성의 정절을 강조한다면, 활자본에서는 서사 전개 of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호양문록〉에는 최희성이 별히도 사신으로 파견되어 강적을 토벌하고 돌아오는 내용이 등장하지만, 〈월영낭자전〉에는 이러한 내용이 축약되어 있다. 〈최호양문록〉에는 최생이 점차 호소저에게 애정을 느끼는

14)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464쪽; 조희웅, 『고전소설 연구보정』, 723-724쪽; 안남기, 앞의 논문, 7-19쪽.

데 반하여 <월영낭자전>에는 이런 대목이 생략되었다. 그리고 <최호양문록>에는 호씨가 먼저 죽는다면 <월영낭자전>에는 민씨가 먼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up>15)</sup> 작품의 말미에서 호씨와 민씨 가운데 어떤 인물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사건의 변모는 최씨와 호씨의 혼사가 중심인 <최호양문록>과 월영낭자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월영낭자전>의 표제를 통해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오랫동안 지속된 필사본의 전통은 활자본의 등장과 함께 위축되지 않았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활자본 <월영낭자전>이 출판된 뒤에도 여전히 필사본으로 유통되었다. 이런 점에서 조선 후기 <최호양문록>과 <월영낭자전>을 향유한 사람들의 신분계층은 서로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필사본은 양반이나 선비집안에서 주로 향유했다면, 활자본은 상민들이 주로 향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6)</sup> 따라서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활자본 <월영낭자전>으로 개작되면서도 필사의 전통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활자본 <월영낭자전>은 필사본 <최호양문록>에 비해 좀 더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최호양문록>의 이본 중에서 계명대본과 흥윤표본, 성대본 등이 비교적 선본(善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sup>17)</sup> 계명대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고 안정된 필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서사 구조의 일관성을 내포하고 있다. 흥윤표본과 성대본은 자사 위현의 탐욕처럼 특정한 대목이 부연·확장되어 있다. 한중연본 <최호양문록>은 18장 이후에 <유씨삼대록>의 내용이 첨가된 결본이다. 연세대본 <최호양문록>도 23장으로 구성되어 완본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계명대본 <최호양문록>은 내용 전개에 무리가 없고 필사연대도 1874년으로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명대본 <최호양문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5) 한성서관본, <월영낭자전>, 『고전소설』 2권(민족문화사, 1983), 80쪽. 세월이 무정하여 일가 티평으로 지너더니 민부인이 흘린 득병하여 날노 심중히더니 장초 세상을 이별홀식.

16) 김재웅, 「경북 지역에 유통된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실증적 연구」, 『고소설연구』 24집(한국고소설학회, 2007.12), 219-250쪽. 김재웅, 「영남 지역 필사본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향유층의 욕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집(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6), 5-35쪽. 필사본 고소설을 향유한 신분계층을 분석한 결과 양반집안 또는 선비집안의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7) 여기서는 필사본 <최호양문록>의 작품론에 치중했기 때문에 자세한 이본연구는 후고에서 진행할 것이다.

### III. 〈최호양문록〉의 구조적 특징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양문록’이라는 표제 때문에 유형적 성격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작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조적 특징과 유형적 성격을 밝혀야 한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양가 부친에 의해 결정된 최희성과 호월영의 혼사장애갈등이 전반부의 주요한 서사 골격을 이루고 있다. 혼사장애갈등을 내포한 서사 단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주인공의 출생과 부모의 혼사결정
- (나) 간신의 모함과 호씨 집안의 몰락
- (다) 자사 원선의 재취와 호소저의 피신
- (라) 최희성의 급제와 민씨부인과 결혼
- (마) 최희성과 호소저의 재회 및 결혼

이러한 (가)-(마)의 서사 단락은 혼사장애갈등이 서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가)에서는 최희성과 호월영이 출생하였는데 양가 부친이 혼사를 약속했다. 그런데 (나)처럼 간신의 모함으로 호시랑의 집안은 몰락하게 된다. 호상서의 죽음과 아내 여씨부인의 자결까지 겹치면서 호소저는 줄지에 고아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호소저는 (다)와 같이 미모를 탐하던 자사 원선의 재취 욕망을 물리치고 피신하여 경어사 집에 유숙한다.

한편, 과거에 급제한 최희성은 (라)처럼 호소저의 소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호성 때문에 민씨부인과 결혼한다. 최희성이 소주 숙부인 문병을 갔다가 (마)와 같이 경어사 집에서 호소저를 만나 결혼한다. 이렇게 최희성과 호월영은 양가 부친의 혼사결정을 수행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여기까지의 서사 단락은 필사본 〈최호양문록〉의 표제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반부의 서사 단락 중에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이 남아 있다. 그것은 (나)의 충신 호시랑을 모함하여 호소저의 집안을 몰락시킨 간신에 대한 처벌이다. 간신 여화와 연괘에 대한 처벌은 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필사본 〈최호양문록〉의 전반부는 최희성과 호월영의 혼사장애갈등이 서사 전개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필사본 <최효양문록>의 후반부에는 쟁총형 갈등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작품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쟁총형 갈등은 늑혼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권력을 장악한 정국공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다. 장녀는 선한 인물로 황후가 되었으나, 차녀는 두 부인을 거느린 최생과 결혼하려고 억지를 부린다. 정국공의 차녀 정씨는 최씨 집안의 반대를 정치권력으로 제압하면서 결혼을 성사시켰다. 남편과 시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기 때문에 정씨부인은 순탄한 가정생활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남편의 애정을 얻기 위한 정씨부인의 악행이 처처 간의 쟁총갈등으로 발전한 것이다.

- (바) 최희성과 정국공 차녀의 결혼
- (사) 정씨부인과 호씨부인의 갈등
- (아) 최희성의 별히도 강적토벌
- (자) 호씨부인의 절행과 부부상봉
- (차) 정씨부인의 안장 거부와 가정의 화목
- (카) 최희성의 흉노정벌과 부귀공명
- (타) 간신 처벌과 부모 원수 갚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갈등구조는 (바)-(타)이다.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핵심 사건은 처처 간의 쟁총형 갈등이다. 정국공의 차녀가 (바)처럼 최희성과 결혼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깨뜨리게 된다. 황후의 권력을 믿고 교만해진 정씨부인은 (사)처럼 호씨부인과 처처 간의 애정다툼이 발생한다. 정씨부인은 호씨부인보다 순위가 아래에 있는 것을 싫어해 정절 훼손의 누명을 씌어 제거하려고 했다. 정씨부인의 모함은 (아)와 같이 남편 최희성이 강적을 토벌하러 떠난 뒤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남편의 부재는 세 부인 간의 애정다툼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씨부인의 모함에 속은 시부모는 호씨부인의 정절을 의심하여 귀중한 손자까지 죽이게 되었다.<sup>18)</sup> 천상 선관의 도움으로 정씨부인의 계략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천자는 호씨부인을 방면하고 집안을 위태롭게

18) 호씨부인의 자식이 사망한 경우는 계명대본 <최효양문록>을 비롯한 '양문록'의 표제를 보여준 작품에 등장한다. 호씨부인의 자식이 생존한 경우는 단국대본 <호씨전>, 국민대본 <호씨호공록> 등에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최효양문록>의 이본은 호씨부인 자식의 생사에 따라 서사 단락의 첨삭이 다르게 나타난다.

했던 정씨를 처벌하려고 한다. 그런데 정씨부인은 아이를 잉태한 상태에서 자결하였다. (자)에서는 호씨부인의 절행을 칭찬하고 부부 간의 상봉이 이루어진다. 정씨부인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차)와 같이 최씨가 아닌 정씨부인의 선산에 안장되었다. 최희성은 (카)처럼 흥노를 정벌하고 부귀공명을 이룩한다. 호씨부인은 집안을 몰락하게 만든 간신을 (타)와 같이 처벌하고 부모의 원수를 갚았다.

이러한 필사본 〈최호양문록〉의 후반부는 정씨부인과 호씨부인의 쟁총형 갈등이 서사 전개의 핵심을 차지한다. 최희성과 호월영의 결혼은 천상 연분으로 등장하는 데 반하여 최희성과 정씨부인의 결혼은 정치권력에 의한 강요에 가깝다. 민씨부인과 달리 호씨부인은 양가 부친의 혼사결정과 천상 연분으로 결혼했다면, 정씨부인은 최씨 집안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권력을 남용하여 결혼한 것이다. 이렇게 〈최호양문록〉에는 양가 부모의 약속과 천상 연분에 의한 결혼은 행복하지만, 권력을 남용한 늑혼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뚜렷이 보여준다. 조선 후기 쟁총형 가정소설에는 이러한 처처 간의 애정갈등이 핵심 서사로 등장하고 있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전반부의 혼사장애갈등과 후반부의 처처 간의 쟁총형 갈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의 혼사장애갈등에서 해결되지 않은 간신에 대한 처벌과 부모의 원수 갚기는 후반부로 연결된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 최희성과 세 부인의 다양한 결혼담이 작품의 서사구조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정치권력에 의한 늑혼은 작품의 전·후반부가 유기적 총체성을 확보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필사본 〈최호양문록〉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서사구조는 무엇일까? 〈최호양문록〉은 〈유이양문록〉, 〈이조양문록〉 등과 같이 혼사장애갈등 구조가 등장하고 있지만, 작품의 분량이 단편일 뿐만 아니라 누대에 걸친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호양문록〉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는 열쇠는 작품의 후반부에서 찾아야 한다. 전반부의 혼사장애갈등은 후반부의 쟁총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반부는 늑혼에 의한 처처 간의 쟁총형 갈등구조를 한층 강화시켜 보여준다. 따라서 〈최호양문록〉은 혼사장애갈등과 처처 간의 쟁총갈등을 내포한 조선 후기 가정소설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양문록의 표제를 보여주는 〈유이양문록〉, 〈이조양문록〉, 〈하진양문록〉, 〈부장양문록〉, 〈김이양문록〉 등과 다른 유형적 성격을 보여준다. 〈최호양문록〉과 〈김이양문록〉은 가정소설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최호양문록〉은 쟁총형 갈등구조를 내포한 반면, 〈김이양문록〉은 계모형 갈등구조를 내포하고 있다.<sup>19)</sup> 이런 점에서 〈최호양문록〉은 조선 후기 가정소설 〈장학사전〉과 동일한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 〈장학사전〉은 장혜랑과 소소저의 결연담, 늑흔에 의한 소소저와 후주 사이의 쟁총갈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최호양문록〉은 〈장학사전〉과 달리 혼사장애갈등이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악인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준다.<sup>20)</sup>

이상에서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전반부의 혼사장애갈등과 후반부의 처처 간의 쟁총형 갈등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서사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sup>21)</sup> 작품의 전·후반부를 통합하고 있는 사건들은 정치적 권력에 의한 늑흔, 관리의 탐욕과 여성의 정절, 충신을 모함한 간신에 대한 처벌, 몰락한 집안의 부흥과 부모의 원수 갚기, 천상적 연분과 천상적 협조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혼사장애갈등이 강조된 조선 후기 쟁총형 가정소설의 구조적 특징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하겠다.

#### IV. 〈최호양문록〉의 가정소설적 위상

##### 1. 가문소설의 교섭과 쟁총형 가정소설의 변모

조선 후기 고소설사에서 가정소설과 가문소설의 이행방향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가정소설에서 가문소설로 확대되는 방향과

19) 김재웅, 「〈김이양문록〉의 창작방법과 가정소설적 의미」, 『영남학』 12호(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7.12), 134-142쪽.

20) 조선 후기 쟁총형 가정소설의 성격을 보여주는 〈장학사전〉은 〈소씨전〉, 〈완월루〉, 〈조생원전〉 등의 이본이 존재하고 있다. 〈장학사전〉은 늑흔으로 결혼한 후주의 악행을 용서하여 가족의 화합을 이룩한다.

21) 김재웅, 「〈유취현전〉의 구조적 특징과 가정소설의 지평 확장」, 『정신문화연구』 102호(한국학중앙연구원, 2006.3), 79-103쪽.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유취현전〉과 마찬가지로 전·후반부의 갈등구조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가문소설에서 가정소설로 축약되는 방향이 그것이다.<sup>22)</sup> 가정소설은 새로운 가족 간의 갈등이 핵심이라면, 가문소설은 집안 간의 혼사장애와 세대를 거둡히는 자손의 번창을 통해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조선 후기 필사본 고소설은 향유과정에서 다양한 작품과 상호 교섭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필사본 〈최호양문록〉도 쟁쟁형 가정소설의 갈등구조를 토대로 하면서도 가문소설의 영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sup>23)</sup>

〈최호양문록〉은 가문소설의 일종인 ‘양문록’의 표제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최씨와 호씨의 부친이 결정한 혼사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성취하는 혼사장애갈등 구조를 보여준다. 그런데 〈최호양문록〉에는 주동 인물의 수많은 자녀 세대 이야기를 수직적으로 확대하는 세대록의 구조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 대신 조선 후기 쟁쟁형 가정소설의 갈등구조가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양가 부친의 결정에 의해 결혼한 호씨부인과 시부모의 반대에도 정치권력을 남용해 결혼한 정씨부인의 애정갈등은 작품의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건이다. 가정소설의 갈등구조를 내포한 〈최호양문록〉은 가문소설의 표제를 수용해 작품의 품격을 높이려고 했다.

조선 후기 쟁쟁형 가정소설과 같이 필사본 〈최호양문록〉에 등장하는 처처 간의 갈등은 선악 대결을 답습하고 있다. 천상 연분을 가진 최희성과 호월영은 양가 부친의 혼사결정에 의해 결혼하려고 했으나, 간신의 모함으로 호씨 부모가 죽게 되면서 결혼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때 과거에 급제한 최희성은 호소저가 죽은 것으로 알고 민씨부인과 결혼하여 부모에게 효성을 다한다. 한편, 소주 숙부인 병문안을 갔던 최희성은 그곳에서 호소저를 만나 육례로 맞이해 결혼하게 된다. 비로소 양가의 부친이 결정한 천상 연분의 혼인이 완성되었다.

이러한 최희성과 민씨부인, 호씨부인의 결혼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정국공의 차녀 정씨와

22) 이승복, 『고전소설과 가문의식』(월인, 2000), 168-171쪽. 여기서는 부부관계 축을 중시하면 가정소설, 부자관계 축을 중시하면 가문소설로 구분하고 있다.

23) 한중연본, 〈최호양문록〉은 장편가문소설 〈유씨삼대록〉과 교섭했음을 보여준다. 〈최호양문록〉을 필사하던 중 18쪽 이후에 〈유씨삼대록〉을 필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이 연작형 삼대록 소설의 출현에 기여했다는 점도 조선 후기 가정소설과 가문소설의 교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태학사, 1996), 12-38쪽.

결혼하면서 기존 부인들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난 것이다. 정국공의 장녀는 황후가 되었고 차녀는 황후의 권세를 믿고 방자하게 행동한다. 정씨부인은 남편의 총애를 받기 위해 호씨부인의 정절을 의심하는 음모를 꾸민다. 그럼에도 호씨부인은 자신의 결백을 소극적으로 주장하는 열부로 등장할 뿐이다. 셋째부인으로 들어온 정씨부인의 일방적인 모해로 최씨 집안은 시부모까지 나서서 호씨부인을 처벌하게 된다.

그런데 호씨부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결정적인 계기는 천상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씨부인의 모함에서 비롯된 호씨부인의 정절 훼손에 대한 문제를 천상 선관이 해결한다는 점은 사건 전개 of 환상성을 보여준다.<sup>24)</sup> 이 때문에 <최호양문록>에서는 남편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남편 최희성은 강적을 토벌하기 위해 별히도로 떠나기 전에 집안에 남겨진 호씨부인을 위해 정씨부인을 조심하라고 당부할 뿐이다. 남편 대신 천상의 옥황상제가 개입하여 호씨부인의 결백과 무죄가 증명된 것이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작품의 표제에서 보듯이 최씨와 호씨의 혼사를 중심으로 갈등이 전개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작품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처처 간의 쟁총갈등은 서사 전개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호양문록>은 세 집안의 혼사장애갈등과 쟁총형 갈등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최희성 집안의 자녀와 손자의 출산 및 결혼을 통한 가문의 번창이 장황하게 등장한다.

민호 두 부인이 잉태하여 호시는 싱즈하고 민씨는 상티싱여 하니 구괴 상셔 크게 깃거 장여의 명은 계영이라 하고 츠여의 명은 손영이라 민부인의 장즈는 티영이오 즈즈난 의영이오 습즈난 위영이라 남이는 부친을 습하고 여이는 모친을 달마 조요즈악 하고 소담하여 영옥 갖하니 인이 스랑하고 호부인이 습즈일여랄 두어시니 증즈는 정영이오 츠즈난 비영이오 삼즈난 경영이오 여아는 귀영이라 ... (중략) ... 계양후 장즈 티영의 연이 십습세라 당원하여 즉시 금문직 여즈랄 취하니 조소져 안식이 금분연화갓고 아릿다운 티티 세갓고 hing실이 높호미 진딧 민부인의 머느리라 ... (중략) ... 호부인 장즈 정영의 연이 십스의 춤방하여 즉시 혼인을 하니시니 영충이 국흔지라

24) 계명대본, <최호양문록>, 91-92쪽. 무식 칼홀 드러 비히고져 하더니 문득 디풍이 이러 나고 천식이 흐리며 큰비와 눈이와 디척을 분간치 못하고 하날과 싸올 혼드니 국민이 황황하고 천직 놀나샤 호씨 특이물 물이치니 ... (중략) ... 선인이 은은히 거러 천즈얹회 나아와 읍하고 와 나는 옥계명을 맞즈와 인간의 호시랄 구형여왔스니 호시는 천상 옥딘성이란 ... (중략) ... 정여 요디로운 색로 천즈랄 썩이나 상제 조츰 썩으시라.



이부상서의 여탈 마즈오니 소제 얼굴이 화려하며 윤뵈움이 부용갓고 덕행이 그이혀여 언단이 상활하고 안흐로 정담흠미 옥결빙심갓한지라 … (중략) … 민씨 츠즈 명영의 연이 십습이오 호부인 츠즈 경영의 연이 동연심이라 함의 춤방하니 경영은 혼입혹스랄 하이시고 명영은 시어스랄 하니시니 양인의 영룡이 일국의 찻치니 조정이 공경허더라 명영은 톡혹스 참여랄 취하고 경영은 좌승상 츠의일여 마즈오니 … (중략) … 민호 두부인과 최공이 제부등 편이허더라 호부인 여으 비연소져 연이 십일세라 적용덕행이 형제등 싸여나이 상이 톡즈비랄 톡혹실시 삼천여즈등의 최소저랄 톡혹사 비랄 봉하시 니<sup>25)</sup>

위 인용문과 같이 최씨 집안의 민씨부인과 호씨부인 자녀의 출생과 과거급제 및 황실과의 결혼담이 생각보다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런 최씨 집안의 2대 최희성 자녀들의 이야기와 3대에 해당하는 최희성 손자들의 결혼담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가문의 번창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씨 집안 자손들의 활약이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서사 전개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최효양 문록>에서 <월영낭자전>으로 개작되면서 이런 불필요한 내용이 대폭 생략되었다. 따라서 필사본 <최효양문록>은 가문소설의 자손 번창을 수용했지만, 가정소설에 적합하도록 활자본 <월영낭자전>으로 변모된 것으로 보인다.

가문소설의 흔적은 작품의 말미에서 호씨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민씨부인이 호씨부인의 자녀를 돌보는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최효양문록>은 호씨부인의 자녀를 민씨부인이 돌보는 모습을 통해 민씨부인의 은혜와 부덕을 칭송하고 있다. 민씨부인은 최씨 집안의 안정과 번영을 염원한 가문소설의 여성상을 보여준다.<sup>26)</sup> 반면, <월영낭자전>은 민씨부인의 자녀를 호씨부인이 돌보는 일대기 구조로 변모되었다. 결국 <최효양문록>은 민씨부인의 부덕을 통해 가문의 행복과 자손의 번창을 염원했다면, <월영낭자전>은 호씨부인의 부덕을 강조하는 일대기 구조로 개작되었다.

25) 계명대본, <최효양문록>, 104-108쪽. 작품에 등장하는 최씨 집안 자손의 결혼담은 일반적인 고소설의 결말부에 첨가된 내용과 달리 황제의 가문과 결혼하는 내용이 장황하게 서술되고 있다. 특히 흥윤표본의 2권에는 75-90쪽에 걸쳐 최씨 집안 자손들이 황실의 자손들과 결혼하는 내용이 확장되어 등장하고 있다.

26) 민씨부인은 위기에 처한 호씨부인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호씨부인 사후에 그 자손을 친자식처럼 돌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민씨부인의 부덕을 칭송하는 장면을 통해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가문소설과 가정소설의 교섭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필사본 〈최효양문록〉은 조선 후기 생충형 가정소설에 가문소설의 혼사장애를 내포한 표제와 자손의 번창, 늑혼 모티프 등을 수용해 활자본 〈월영낭자전〉으로 개작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양문록’을 표제로 사용한 작품군에는 다양한 유형의 고소설이 혼효되어 있다. 예컨대 〈유이양문록〉, 〈이조양문록〉은 가문소설의 성격을 보여준다<sup>27)</sup> 〈하진양문록〉, 〈부장양문록〉은 영웅소설적 성격을 보여준다.<sup>28)</sup> 그리고 〈김이양문록〉과 〈최효양문록〉은 가정소설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sup>29)</sup> 이런 점에서 〈최효양문록〉은 ‘양문록’의 작품 가운데 분량이나 서사구조에서 커다란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조선 후기 생충형 가정소설 〈최효양문록〉은 가문소설과 교섭하면서 작품의 품격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월영낭자전〉으로 개작되는 변모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2. 여성 향유층과 혼사장애담 및 애정담의 확장

필사본 〈최효양문록〉은 남성보다 여성이 적극적으로 향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민대본 〈호씨호공록〉은 ‘조소저’가 필사자로 등장한다. 한중연본 〈호씨행록전〉은 ‘고령 박씨부인’이 책을 소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작품을 향유한 여성들은 자신이 손수 필사하거나 작품을 소장하면서 지속적인 독서를 한 것이다. 필사본 〈최효양문록〉에는 최씨와 호씨의 혼사장애갈등과 처처 간의 생충갈등이 복합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여성 향유층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성 향유층은 정치적 군담보다는 결혼담이나 애정담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 필사본 〈최효양문록〉에는 주인공 최희성의 군담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최희성의 군담은 별히도 사신으로

27) 이수봉, 『한국가문소설연구』(경인문화사, 1992), 156-349쪽; 박숙례, 「〈유이양문록〉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7), 1-140쪽; 차충환, 「〈유이양문록〉의 구조적 성격 연구」, 『어문연구』 139호(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107-127쪽; 조광국, 「〈유이양문록〉의 작품 세계」, 『고소설연구』 26집(한국고소설학회, 2008.12), 179-206쪽.

28) 박숙례, 「〈하진양문록〉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1999), 1-74쪽; 김민조, 「〈하진양문록〉의 창작방식과 소설사적 위상」(고려대 석사논문, 1999), 1-129쪽;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19집(한국고전문학회, 2001), 219-229쪽; 이병직, 「〈부장양문록〉의 작품 세계와 소설사적 위상」, 『한국민족문화』 34권(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7), 27-54쪽; 채윤미, 「〈부장양문록〉 연구」(서울대 석사논문, 2009), 1-103쪽.

29) 김재웅, 앞의 논문, 134-142쪽.

가서 강적을 토벌하고 돌아오거나 흉노를 정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최희성의 영웅적 군담은 서사 단락에 간략하게 등장할 뿐 구체적인 활약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잇씩 천지 회성으로 하여금 별히도의 스신을 보너실식 별회도는 지방이 슈천이오 인심이 강악하여 흉적이 만흐니 경은 지덕이 만코 문뫼 겸전호은고로 보너니니 경은 강적을 준멸하고 계가랄 울여 도락와 담의 브리는 바랄 저마리지 말나<sup>30)</sup>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최희성의 영웅적 활약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천자가 최희성을 별히도 사신으로 보냈지만, 강적을 토벌하는 최희성의 군담 영웅적 모습은 등장하지 않는다. 〈최호양문록〉은 군담 영웅의 활약이 축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빈약한 실정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최희성의 군담 영웅적 활약은 흉노를 정벌하는 대목에서도 축약되어 나타난다.<sup>31)</sup> 이 작품과 동일한 유형을 내포한 〈김이양문록〉을 제외한 〈유이양문록〉, 〈이조양문록〉, 〈하진양문록〉, 〈부장양문록〉 등에서는 영웅적 인물의 활약과 군담이 다채롭게 등장한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의 군담 영웅적 활약이 축약 내지 생략된 것은 여성 향유층의 지속적인 향유의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성 향유층은 남성 향유층에 비해 영웅적 인물의 전쟁이나 군담을 선호하지는 않았다.<sup>32)</sup> 이런 점에서 〈최호양문록〉을 필사하고 향유했던 여성 독자층에 의해 군담이 대폭 축약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여성 향유층의 관심을 유발하는 혼사장애갈등과 처처 간의 쟁충형 갈등이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모한 것으로 보인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의 혼사장애갈등은 충신과 간신의 대결에서 파생되었다. 간신 여회는 ‘조정을 장악한 호시랑이 사람을 모아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숨은 뜻이 있다’고 모함한 것이다.<sup>33)</sup> 이 때문에 호씨 집안은

30) 계명대본, 〈최호양문록〉, 70쪽.

31) 계명대본, 〈최호양문록〉, 104-105쪽. 천지 봉호시고 툃지 즉위호시니 소히 안정호시고 십만정병을 거느려 휴노랄 정발호시 예부상서 최희성을 특디로 디원슈랄 습야 정발한 습연만의 흉노랄 항복밧고 공을 세우니 천지 극히 아람다이 너이사... (중략)... 영충 부귀 일국의 단둥호더라.

32) 김재웅, 「〈강능추월전〉의 여성 독자층과 독자 수용의 태도」, 『어문학』 75집(한국어문학회, 2002), 115-140쪽; 김재웅, 「강릉추월전 작품군의 종합적 이해」(보고서, 2008), 9-260쪽. 필사본 〈강능추월전〉을 소장한 여성 향유층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통해 군담을 축소하고 결혼담을 확장한 사례를 확인하였다.

33) 계명대본, 〈최호양문록〉, 7쪽. 일일은 여화 참소왈 신이 듯즈오니 시랑 호원이 우호로

일시에 몰락하고 호소저는 줄지에 고아가 되었다. 이러한 충신과 간신의 갈등으로 최씨와 호씨의 양가 부친이 약속한 혼사는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부귀영롱이 국하나 부모원슈랄 감디 못 듀야 한탄하더니 이적의 여화 연쾌등의 불충간모를 밝히 아라샤 양인을 제즈거리에 춤하시고 선디일을 누웃츠샤 호원을 양양파후랄 봉하시고 부인여씨랄 절부비랄 세우시니 일국인이 다깃거하고 호부인이 제전을 비푸고 적의 간을 너여 부모 영위에 곡빅하니 호로는 눈물이 충히슈랄 못힐니라<sup>34)</sup>

충신의 억울한 죽음은 정절을 지킨 호소저의 활약 덕분에 표상된다.<sup>35)</sup> 위 밑줄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호소저는 간신 여화, 연쾌를 죽여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 호소저는 간신의 간을 꺼내어 부모의 영전에 바친다. 이것은 간신의 모함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부친과 남편을 따라 자결한 모친의 원한을 풀기 위한 장치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간신의 모함으로 혼사장애를 겪은 호소저는 간신을 철저히 응징하고 있다. 따라서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호소저가 간신을 처벌하는 권선징악을 통해 여성 향유층의 억압된 심정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필사본 〈최호양문록〉에는 자사 원선이 호소저를 재취하려는 혼사장애가 등장한다. 호소저의 미모에 반한 자사 원선은 권력형 탐욕을 보여준다. 자사는 호소저의 미모를 탐하기 위해 우선 본처를 내치고 유모를 보내 청혼한다. 그러나 호소저는 이미 최생과 정혼했기 때문에 자사의 청혼을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자사는 최랑의 서간과 교자를 위조해 노골적으로 호소저를 재취하려는 욕망을 품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사는 자객을 동원하여 강제로 호소저를 데려오게 한다. 자사 원선의 집요한 재취욕망은 점점 폭력적으로 전개된다.

호소저는 자사의 계락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초상을 치르라고 당부한 뒤 변복하여 피신했다. 자사 원선은 호소저를 재취하려는 욕망이 실패하

---

성상 총에 국하고 뜻한지 미과인하여 조정을 총덥하고 천후랄 드스려 한 쇠로써 조정 스람을 거두어 당즈김흔 소견이 잇난지라 성상은 엄문호소서.

34) 계명대본, 〈최호양문록〉, 105-106쪽.

35) 계명대본, 〈최호양문록〉, 105쪽. 천지 동문남 최순가의 궁을 지으니 … (중략) … 디궤 과한가지라 별호랄 승천궁이라 하고 붉은문의 금즈로 썼시디 충신정절의 최적문이라 하였더라 문압히 호씨의 정절을 표하시 비랄 세우시니 만조빅관이 동문의 이르러 공경하니 당궁금일궁이 되었더라.

자, 다시 내친 아내를 데려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sup>36)</sup> 고을 수령이 몰락한 호씨 집안의 아녀자를 강제로 재취하려는 욕망은 실패로 끝났다. 이러한 자사 원선의 권력형 비리는 호소저의 정절의식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었다. 호소저는 자사 원선의 재취 욕망을 벗어나 최희성과 결혼하기 위한 다양한 혼사장애를 겪고 있다. 따라서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여성 향유층에 의해 영웅적 인물의 군담이 대폭 축소되고 혼사장애 담과 정절을 중시한 처처 간의 생충갈등이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 3. 악인 처벌을 통한 선영관리의 사회상 반영

조선 후기 사족계층의 조상숭배 덕분에 흩어진 조상의 묘소를 한곳에 모아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문중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었다. 이 때문에 향촌사회의 양반계층에서도 조상의 무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선산경영이 점차 보편화되었다. 조선 후기 장자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확립되면서 문중은 선영관리를 통하여 가문의 위상을 높이고 향촌사회의 결속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sup>37)</sup> 이러한 조선 후기 선영관리의 사회상이 필사본 〈최호양문록〉에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된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에 나타난 선영관리의 사회상은 악인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최희성은 호씨와 천상 연분이 있음에도 그녀가 죽은 줄 알고 민씨부인과 결혼한다. 비록 호씨부인과 천상 연분이 있어도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겠다는 최희성의 다짐은 유교의 부부윤리를 보여준다. 그래서 최생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 열흘은 민씨부인, 열흘은 호씨부인, 나머지 열흘은 서당에서 공부한다. 이렇게 최생은 두 부인을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처처 간의 불만을 잠재웠던 것이다.

그런데 정국공의 둘째 딸이 시부모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희성과 결혼한다. 세 차례의 결혼담은 최희성의 영웅성과 조선 후기 다처제의 생활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최생이 세 부인을 맞이한 다음 팔일은 민씨부

36) 계명대본, 〈최호양문록〉, 22-23쪽. 즉시 참담히 너이느 오히려 의심하야 서모 경씨랄 가보르 하니 ... (중략) ... 상류의 소당이 즈옥한디 영호의 폐상을 노호 제물이 의구한 디 목항니 응비하고 슈다 비복은 입고 통곡하니 조금도 의심한 곳이 없스디라 경씨 탄식하고 두로 전하니 즉시 악연하야 즉시 안희형씨랄 다려온이르.

37) 김혁, 「19세기 사족층의 선영경관 조성과 그 의미」, 『퇴계학과 한국문학』 40호(경북대 퇴계연구소, 2007.2), 333-373쪽.

인, 십일은 호씨부인, 사오일은 정씨부인을 각각 찾게 된다.<sup>38)</sup> 이렇게 최생이 세 부인의 침소를 찾는 기간에 따라서 남편의 사랑이 결정되었다. 최생이 정씨부인보다 호씨부인을 자주 찾는 데 대한 반감이 처처 간의 쟁충갈등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씨부인이 호씨부인을 포함한 까닭은 무엇일까? 정씨부인은 정국공의 차녀이자, 황후의 여동생으로 권력의 핵심에 놓여 있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정씨부인은 민씨부인이나 호씨부인보다 자신의 신분 서열이 낮은 것을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욱이 남편은 천상 연분으로 결혼한 호씨부인을 편애하면서도 정씨부인에게는 아주 냉담했다. <최호양문록>은 처처 간의 쟁충갈등이 남편의 편에 때문에 발생하는 조선 후기 가정소설의 서사 문법을 보여준다.

정씨부인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호씨부인을 온갖 계략으로 포함한 것이다. 정씨부인은 남편 최희성이 별히도로 떠난 뒤, 호씨부인의 글씨를 위조하여 쌍한림과 연분을 맺었다고 포함한다. 정국공의 차녀인 정씨부인의 포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정씨부인은 호씨부인의 정절을 포함하기 위해 쌍한림과 정을 통한 사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객을 보내 최씨 집안의 시부모를 죽이고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쌍한림에게 보낸 것으로 포함한다.

박명첩은 돈슈 적비하고 쌍군 좌하의 글월을 밧드러 올라니 첩은 조상부모하고 혈혈한 인성을 천지 도오샤 군을 의탁하니 미암의 빅연동류랄 낫버디니 불의에 군지 시첩의 연고로 구박하시니 악한여지 절을 덕히고져 하나... (중략) ... 부모의 후사랄 심각하고 첩의 흥안을 슬허 최칭의 안회 디여이시니 가버야이 다르난즉 해이실 거시니... (중략) ... 황혼의 즈각을 보니여 구고랄 득이고 비검유즈랄 득이고 첩을 다려가면 은혜 득기로써 갑흐리라<sup>39)</sup>

정씨부인은 자신의 아들이 병사한 뒤 더욱 포악하게 호씨부인을 꺾박한다. 이러한 악인의 아들이 죽으면서 더욱 격렬하게 선인을 포함하는 내용은 조선 후기 가정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이다. 정씨부인의

38) 계명대본, <최호양문록>, 59쪽. 싱은 정직군지라 여주의 원망을 업시코져하여 일속의 팔일은 민소져 침소의 잇고 십일은 호소져 침소의 잇고 스오일은 정씨탈 츠즈니 괴로으물 이기지 못하고 그여의난 서당의서 학업을 늦치 안이하고... (중략) ... 일기 화락히디 오디 정씨난 간악함미 톱심히야 그총이 호씨 아리됨을 앙양분통하고 민씨 비금됨을 한히더라.

39) 계명대본, <최호양문록>, 74-75쪽.

모함에 걸린 호씨부인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욱 위태로운 것은 바로 자신이 낳은 자식이다. 시부모는 정절을 훼손한 호씨부인이 낳은 자식을 죽이려고 하였다. 비록 악인의 모함에 속았다고 해도 시부모가 손자를 죽게 하는 사건은 매우 특이하다. 호씨부인은 작품의 후반부에서 “유익 치의로 하여곰 어미 죄로 득은이 이거시 유훈이오”와 같이 억울하게 죽은 자식을 한탄하고 있다.

호씨부인은 정씨부인의 모함으로 위기에 처했지만 쉽게 자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호씨부인이 자결하면 모든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호씨부인은 국법에 따른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호씨부인은 위기의 순간에 천장 선관의 도움으로 모든 혐의를 벗어나게 된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천자는 정씨부인을 처벌하려 했으나, 정씨부인은 임신 8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자결했다.<sup>40)</sup> 악인으로 등장한 정씨부인의 자결로 모든 사건이 결말된 것은 아니다. 정씨부인의 악행은 호소저의 정절에 대한 모함과 최씨 집안의 몰락을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사회에서 여성은 결혼과 더불어 ‘출가의인’이 되었다. 이러한 ‘출가의인’이라는 말은 죽어서도 시집의 귀신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필사본 〈최효양문록〉에는 호씨부인의 정절을 모함했던 악인 정씨부인의 시신을 정국공이 최씨 집안의 선영에 묻으려고 추진했다. 정국공의 둘째 딸인 정씨부인은 최회성과 결혼했기 때문에 당연히 최씨의 선산에 안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최씨 집안에서는 정국공의 차녀 정씨부인의 악행을 문제 삼아 문중의 선영에 안장되는 것을 거부한다.

츠설 정국공이 달이 득은즉 시신을 거두어 최시묘호의 안장하려하니 각노 정식왕 정시는 너집 원슈라 너집 선산장할거시라 이렛닷 업슈이 녀이뇨 발이 도르가라... (중략)... 즉시 상구랄 거느려 정가 선산호의 당호고 즉시 향구랄 출혀 적으로 간이라<sup>41)</sup>

정씨부인은 정치권력을 활용해 늑혼으로 최씨 집안에 시집와서 분란만 일으켰다. 정씨부인의 방자함을 경고한 사람은 최상서 부부와 정씨의 언니 황후이다. 정황후는 자신의 권세를 믿고 방자한 행동을 일삼는

40) 계명대본, 〈최효양문록〉, 92쪽. 상이 디경호사 심각호디 이분명 정여의 간악호 씨로 익미한 호씨랄 득이러호미라 스즈로 하여곰 덩씨랄 출아가두라 하니 덩씨 이기별을 두고 전후계고 픽류호물 드르미 상훈낙담하여 스스로 스스호니 슬푸다 무죄한 남을 히호러하다가 골육 까지 상건호니 정씨 잉티 팔수이라 어무죄로 북똥즈식이 동겨스스 호니 천되 명명호물 압이러라.

41) 계명대본, 〈최효양문록〉, 97쪽.

여동생 정씨부인을 꾸중하기도 한다. 정국공의 장녀는 선인으로 등장한다면, 차녀는 최씨 집안을 파멸로 몰아가는 악인으로 등장한다. 정씨부인은 호씨부인의 정절을 모함해 그 자식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자객을 보내 남편을 제거하려고 했다. 이 때문에 최씨 집안에서는 자결한 정씨부인의 시신을 선영에 안장하기를 거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조선 후기 가정소설에서는 처처 간의 쟁충갈등을 유발한 악인에 대한 처벌은 매우 주목된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장학사전>, <정을선전>, <유취현전>, <사씨남정기> 등의 쟁충형 가정소설과 유사하지만, 악인에 대한 처벌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정을선전>, <유취현전>과 <사씨남정기>에서는 권선징악을 실현하기 위해 악인을 처벌한다면, <장학사전>에서는 소부인이 후주의 잘못을 용서할 뿐 아니라 아들에게 후주를 효성으로 섬길 것을 당부한다. 그런데 <최호양문록>은 자결한 악인의 시신을 시가의 선산에 안장하기를 거부하는 색다른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정씨부인의 시신이 친정에 매장되는 풍습을 통해 최씨 집안을 위태롭게 한 악인을 처벌한 것이다.<sup>42)</sup>

이상에서 가정소설의 악인은 천벌을 받아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호양문록>에도 처처 간의 갈등을 유발한 정씨부인은 아이를 잉태했음에도 자결하는 비극적 내용이 등장한다. 그런데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장학사전>과 달리 정씨부인의 악행을 처벌하기 위해 최씨 집안의 선영에 안장하기를 거부한 조선 후기 선영관리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집안을 위해 노력한 호씨부인은 문중의 선산에 안장되었지만, 집안을 위태롭게 한 정씨부인은 친정의 선산에 안장되었다. 따라서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활자본 <월영낭자전>과 달리 문중의 선영관리를 통해 악인을 처벌하는 가문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42) 조선 후기 시집간 여성은 출가외인의 신세로 죽어서도 시가에 묻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시가의 선산에 묻히지 못한 경우는 집안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쟁충형 가정소설에서는 악인을 천벌로 처벌하지만, 문중의 선산에 안장하기를 거부하는 내용은 <최호양문록>에 등장하는 매우 독특한 사건이다. 이러한 악인의 시신을 문중의 선산에 안장하기를 거부하는 장면은 사족충의 가문의식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V. 맺음말

조선 후기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22종의 이본이 존재하고 있으나 연구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활자본 〈월영낭자전〉에 집중되었지만, 필사본 〈최호양문록〉의 이본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활자본 〈월영낭자전〉의 선행본이기 때문에 함께 연구해야 작품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필사본 〈최호양문록〉의 구조적 특징과 가정소설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월령전〉, 〈호씨행록전〉, 〈호씨전〉, 〈호씨호공록〉 등과 활자본 〈월영낭자전〉과 이본관계를 보이고 있다. 〈최호양문록〉의 필사년도는 1874년에서 1940년까지로 나타나는데, 이때는 방각본, 활자본이 간행된 시기이다. 작품의 필사시기는 대체로 농한기에 집중되었다. 이 때문에 작품을 향유한 신분계층은 향촌의 선비집안 및 학자집안의 여성들로 짐작된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1916년에 활자본 〈월영낭자전〉으로 개작되면서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했지만, 필사의 전통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필사본 중에서는 계명대본 〈최호양문록〉이 서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사시기가 앞서는 것으로 보아 선본(善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천상 연분을 가진 최희성과 호월영의 혼사장에 갈등을 다룬 전반부와 남편의 애정을 얻기 위한 정씨부인과 호씨부인 사이의 쟁충갈등을 다룬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호양문록〉은 전·후반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조선 후기 쟁충형 가정소설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 작품의 전·후반부를 통합하고 있는 사건은 충신을 모해한 간신에 대한 처벌, 몰락한 집안의 부흥과 부모의 원수 갚기 등이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구조는 후반부에 등장하는 처처 간의 쟁충갈등이다. 따라서 〈최호양문록〉은 조선 후기 쟁충형 가정소설의 구조적 특징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의 가정소설적 위상은 주목해야 한다. 첫째,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조선 후기 가문소설과 쟁충형 가정소설의 교섭을 통한 변모를 보여준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유이양문록〉, 〈이조양문록〉, 〈하진양문록〉, 〈부장양문록〉 등과 비교하면 작품의 분량이나

서사구조의 차이점을 보인다. <최호양문록>에는 최씨 집안의 자손 출생 및 황실과 혼인을 통한 가문의 번창이 장황하게 등장할 뿐만 아니라 호씨의 절행비와 승천궁을 짓고 '충신정절 최적문'을 세워주는 내용이 첨가되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쟁총형 가정소설 <최호양문록>은 가문소설의 표제와 자손의 번창, 늑혼 모티프 등을 수용해 <월영낭자전>으로 개작되는 변모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여성 향유층에 의해 영웅적 인물의 군담이 대폭 축약된 반면, 혼사장애담과 애정담이 확장되었다. 여성 향유층은 정치적 군담보다는 혼사담이나 애정담을 선호하였다. 실제 작품에서도 호소저는 충신과 간신의 대결에 의한 혼사장애갈등과 자사 원선의 권력형 재취 욕망을 거절한 다음 최희성과 결혼한다. 이러한 혼사담과 쟁총담을 확장한 서사 단락의 변모는 남성보다 여성 향유층이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쟁총갈등에서 파생된 악인처벌을 통해 조선 후기 선영경영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정국공의 장녀는 황후가 되었다면, 차녀는 최씨 집안의 반대에도 최생과 결혼한다. 이 때문에 정씨부인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호씨부인을 모함하게 된다. 정씨부인과 호씨부인의 쟁총갈등은 자식을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최씨 집안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악인으로 등장한 정씨부인은 출가의인임에도 최씨 집안의 선산에 안장되지 못한다. 따라서 <최호양문록>은 조선 후기 문중의 선산경영을 통해 정씨부인의 악행을 처벌하는 가문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계명대 소장본, 〈최호양문록〉. 1-116쪽.
- 김광순, 〈최호양문록〉. 『김광순 소장 필사본 고소설전집』 54권, 박이정, 2002, 349-459쪽.
- 박순호, 〈최호양문록〉. 『한글 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 47권, 오성사, 1986, 1-120쪽.
- 한성서관본, 〈월영낭자전〉. 『고전소설』 2권, 민족문화사, 1983, 1-80쪽.
- 홍윤표 소장본, 〈최호양문록〉 1권. 1-104쪽; 2권 1-93쪽.
- 김민조, 「〈하진양문록〉의 창작방식과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 석사논문, 1999, 1-129쪽.
- 김재웅, 「〈강릉추월전〉의 여성 독자층과 독자 수용의 태도」. 『어문학』 75집, 한국어문학회, 2002, 115-140쪽.
- \_\_\_\_\_, 『강릉추월전 작품군의 종합적 이해』. 보고서, 2008, 9-260쪽.
- \_\_\_\_\_, 「경북 지역에 유통된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실증적 연구」. 『고소설연구』 24집,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219-250쪽.
- \_\_\_\_\_, 「〈김이양문록〉의 창작방법과 가정소설적 의미」. 『영남학』 12호,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7.12, 123-153쪽.
- \_\_\_\_\_, 「영남 지역 필사본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향유층의 욕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6, 5-35쪽.
- \_\_\_\_\_, 「〈유취현전〉의 구조적 특징과 가정소설의 지평 확장」. 『정신문화연구』 10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3, 79-103쪽.
- \_\_\_\_\_, 「호남 지역에 유통된 필사본 고소설의 종류와 향유층에 대한 연구」. 『고소설연구』 28집, 한국고소설학회, 2009.12, 269-299쪽.
- 김혁, 「19세기 사족층의 선영경관 조성과 그 의미」. 『퇴계학과 한국문학』 40호,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7.2, 333-373쪽.
- 민영대, 「〈월영낭자전〉 연구(1)」. 『한남어문학』 26집, 한남대 국문학과, 2002, 73-100쪽.
- \_\_\_\_\_, 「월영낭자전에 등장하는 인물의 유형과 역할」. 『한남어문학』 29집, 한남대 국문학과, 2005, 41-69쪽.
- 박숙례, 「〈유이양문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7, 1-140쪽.
- \_\_\_\_\_, 「〈하진양문록〉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1999, 1-74쪽.
- 송영호, 「월영낭자전 연구」. 강원대 석사논문, 1997, 1-56쪽.
- 안남기, 「〈월영낭자전〉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2, 1-126쪽.
- 이병일, 「월영낭자전 연구」. 인천대 석사논문, 1993, 1-70쪽.

- 이병직, 「〈부장양문록〉의 작품세계와 소설사적 위상」. 『한국민족문화』 34권,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7, 27-54쪽.
- 이수봉, 『한국가문소설 연구』. 경인문화사, 1992, 156-349쪽.
- 이승복, 『고전소설과 가문의식』. 월인, 2000, 168-171쪽.
-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12-38쪽.
- 정병설, 「여성여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1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 219-229쪽.
- 조광국, 「〈유이양문록〉의 작품 세계」. 『고소설연구』 2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12, 179-206쪽.
- 조희웅, 『고전소설 연구보정』. 박이정, 2006, 1038쪽.
- \_\_\_\_\_,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742쪽.
- 차충환, 「〈유이양문록〉의 구조적 성격 연구」. 『어문연구』 139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107-127쪽.
- 채윤미, 「〈부장양문록〉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9, 1-103쪽.

## 국 문 요 약

조선 후기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22종의 이본이 존재하고 있으나 연구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활자본 〈월영낭자전〉으로 개작되었지만, 필사의 전통은 지속되었다. 작품의 필사년도는 1874년에서 1940년까지로 나타나고, 필사시기는 대체로 농한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작품을 향유한 신분계층은 향촌 선비집안의 여성들로 짐작된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혼사장애갈등을 다룬 전반부와 남편의 정씨부인과 호씨부인 사이의 쟁송갈등을 다룬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의 전·후반부를 통합한 사건은 충신과 간신의 대결, 늑혼, 몰락한 집안의 부흥과 부모의 원수 갚기 등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구조는 후반부에 등장하는 처처 간의 쟁송갈등이다. 따라서 〈최호양문록〉은 전·후반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조선 후기 쟁송형 가정소설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 쟁송형 가정소설 〈최호양문록〉은 당시 가문소설의 영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호양문록〉에는 최희성 자손의 출산 및 황실과 결혼을 통한 가문의 번창이 장황하게 등장할 뿐만 아니라 천자가 호씨의 절행비와 승천궁을 짓고 충신정절문을 세워준다. 이런 점에서 〈최호양문록〉은 조선 후기 가정소설의 갈등구조에 ‘양문록’ 표제와 자손의 번창, 늑혼 모티프 등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호양문록〉은 여성 향유층에 의해 군담이 대폭 축약된 반면, 혼사장애담과 애정담이 확장되었다. 실제 작품에서도 호소저는 충신과 간신의 대결에 의한 혼사장애담과 자사 원선의 권력형 재취 욕망을 거절한 다음 최희성과 결혼한다. 이러한 혼사담과 쟁송담을 확장한 서사 단락의 변모는 남성보다 여성 향유층이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최호양문록〉은 쟁송갈등에서 파생된 악인처벌을 통해 조선 후기 선산경영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정씨부인은 호씨부인의 아들을 죽게 했을 뿐 아니라 최씨 집안까지 위태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최씨 집안의 선산에 안장되지 못한다. 필사본 〈최호양문록〉은 조선 후기 문중의 선산경영을 통해 정씨부인의 악행을 처벌한 것이다.

**투고일** 2010. 4. 12.

**수정일** 2010. 5. 24.

**게재 확정일** 2010. 6. 1.

**주제어(keyword)** 최호양문록(Choihoyangmunrok), 월영낭자전(Wolyoungnangajeon), 이본 (different copies), 가정소설(family novels), 쟁총형(a type of competition), 구조적 특징(a structural characteristic), 여성 향유층(woman readers)